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현명한 령도

김 희 진

오늘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 있다.

창당의 첫 기슭에서부터 시작된 수령의 당건설위업이 곳곳이 계승되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역사적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불패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총적과 업입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11~112페이지)

혁명적당은 수령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갈수 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지도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는것을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사상의 일색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임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으며 전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사상과 신념의 결정체로 만들도록 하시였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당의 지도사상과 위대한 투쟁강령이 제시된것은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전환의 이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그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힘찬 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유훈을 깊이 체득하도록 전당적인 학습열풍을 일으키시였으며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에 새기고 사상의지적단결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특히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우리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내용, 형식과 방법을 밝혀주시고 그후 5대교양에 사상공세의 화력을 집중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이후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음악포성으로 사상공세의 포문이 열리고 당선전일군모두가 대오의 나팔수가 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였다.

주체105(2016)년 5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의 만년초석으로, 백승의 기치로 들어쥐고 나아가려는 우리 당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당대회를 계기로 전당적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한 사상전의 열풍이 더욱 거세차게 타번지게 되었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온 사회를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상전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련속포화,명중포화를 들이대는 과정에 당원들과 모든 사회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당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충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장을 비롯한 주요전구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으로 들끓게 되었다.

이처럼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혁명적사상공세의 세찬 열풍속에서 우리 당은 오직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지배하고 백두의 녀과 기상이 차 넘치는 사상적순결체로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천만군민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거창한 변혁의 역사를 창조해나가게 되었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나가도록 하신것이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야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내이며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다져 당이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 19일 당, 국가, 군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들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속에서 당의 사상과 령도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치며 평범한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영원히 함께 하는데 기본을 두고 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각급 당조직들이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접수하면 즉시에 전달포치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철저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제때에 보고하는 혁명적인 규률과 사업기풍을 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모든 당조직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과 국가, 인민앞에 책임지는 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당중앙에 보고하며 결론에 따라 처리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이 시기에 새롭게 작성발표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대한 전당적인 접수토의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시여 당과 혁명대오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 강철의 의지와 배짱으로 현대판종파를 적발분쇄하는 중대조치를 취하시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심화시키도록 하시였다.

당안에 나타난 현대판종파일당을 단호히 적발숙청하고 그 사상여독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으로 힘있게 전개하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지켜내고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굳건히 고수한것은 우리 당이 이룩한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들로 튼튼히 꾸리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장성사업에서도 당적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시고 각급 당조직들 특히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106(2017)년 12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는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였다.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즉시에 집행하는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강도높은 투쟁속에서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풍을 확립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활동하는 우리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이라는 사상을 새롭게 천명하시고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철칙으로 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주적》으로 보고 모든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을 체질화,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꾼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들어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인민관을 확고한 신조로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호소와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짝 차넘치게 되었으며 모든 일꾼들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인민의 충복,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청렴결백하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격의 소유자,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인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 준비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조직들이 인민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도록 하시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닦아주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 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며 설사 엄중한 파로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의 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는것이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복정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어머니당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교양하고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뜨겁게 대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차별없이 품에 안아 참다운 혁명가로, 위훈의 창조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였다.

진정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한점의 마음속그늘도 없이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고있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운명의 보호자, 자애로운 아버지로 따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의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게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인민을 위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초강도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불철주야강행군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헌신의 자욱이 찍혀지는 곳마다에서는 인민대중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이 총폭발되어 수많은 현대적인 본보기생산기지들이 일떠서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 퍼졌으며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는 비약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령도는 특히 주체105(2016)년 뜻밖에 들이닥친 엄혹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을 최단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천지개벽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져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서라도 당장들이닥칠 강추위앞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으로 선포하시였다. 그리고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로 전환시키는 중대결단을 내리시였으며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총동원, 총집중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조직지휘하시며 재해지역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친아버지의 사랑과 은정을 거듭 안겨주시였다.

대재앙의 폐허우에 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 피해지역의 수만세대 주민들이 따스한 보금자리를 펴고 배움의 종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는 현실앞에서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심장으로 터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하여 당중앙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공고한 대중적 기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위대한 수령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투쟁력사에 자랑스럽게 아로새겨지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고결한 충정과 강철의 신념, 탁월한 령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굳건히 담보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높은 존엄과 불패의 위력, 주체조선의 불굴의 기상과 본때를 만천하에 펼쳐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혁명적당풍, 인민대중제일주의